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예배 중에 제단 앞에 나와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축제가 오후집회 시간에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11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장영숙 전도사의 딸 김지아 씨가 김형수 씨와 결혼합니다. 예식은 10일(토) 오후2시 웨딩코리아에서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정복순 문홍일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안수 이윤석 문복순 이근식
 오늘설거지봉사 : 박시내 김세진 김지호 박상규
 다음주설거지봉사 : 양상철 박재란 류준모 심호선
 새 교 우 : 김용훈(5남) 오정은(7녀) 오지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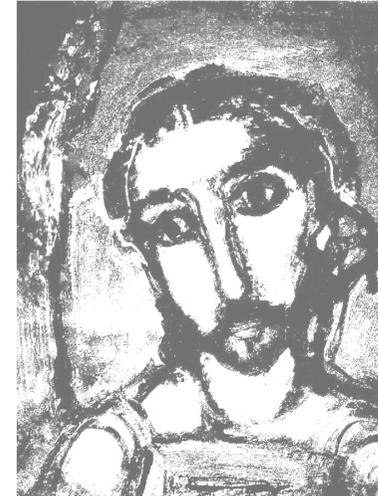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따스한 가을볕을 받으며 서있는 한 그루의 감나무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여름 견뎌야만 했던 모진 비바람을 뒤로 한 채 가지마다 열매를 달고 하늘을 우러르며 묵묵히 서 있는 감나무. 그런 순종과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중요한 결정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 사회를 지켜 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리사욕을 대의로 포장하는 이를 알아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권미정	권 순	권혁순	김근종
정옥영	김기석	김희우	김순자	김연실	김인걸	문영혜	김정민	이혜령
김정애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김지호	전혜리	김현동	김현자	김희진
박홍재	문홍일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옥순	방민방	방준	방문성
박혜경	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서정순	손성현	안경아
안세진	안정숙	오자영	오재영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이정은	이주영	이증자
김창경	임승동	백혜숙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재정	최종원	정한구
왕영순	조병무	송양진	조병억	조정연	주경진	이윤정	최은미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상균	한상익	정영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홍복선	홍선희	홍성식	이유리	황경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순배 김미순 문금석 박병구 박홍재 이경민 이종배 고정림 이증자
 홍성식 이유리 무명4

녹색꿈헌금:

김성한 조영순 양재성

생일감사헌금:

김인걸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김미순
최희영	최경미	정복순	이재문
장영숙	신영신	신영봉	박경원
정경례	진정숙	이봉배	김혜권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박홍재
박효선	허정운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유영남
이형숙	권미숙	김재광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이수정
정영선	서정순	송양진	김희상
박혜경	조향미	임창선	김심상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Thanks to God
August L. Storm 사 Johannes A. Hultman 곡 문정선 역



1. 날 구원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 심 감사
2. 응답 하신 기도 감사 거절 하신 것 감사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꽃 가시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 네
헤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 네
따스 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향기 론 봄철에 감사 외로 가 을 날 감사
아픔 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기쁨 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 안을 감사



사랑 건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해
축량 못 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내일 의 희망을 감사 영원 토록 감사 해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소박한 마음을 간직하며 사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 마음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랑과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가지지 못한 것과 이루지 못한 일만 생각하며 늘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감사라는 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풍요로운 세계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추수감사 축제	11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박아름 선생 김대근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상익 정한구 조선환 왕영순 강인숙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어느 감사절의 기억

산골의 추수감사절은 참 행복합니다. 이긴 마치 동네 잔칫날 같습니다. 이날만큼은 평소에 예배당에 오지 않던 어르신들도 감사절 떡을 드시러 걸음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통해 예배당에 장식할 한두 가지 곡식을 보내주십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마지막 주일은, 서로를 얼싸 안아주고 추운 겨울을 잘 견디자고 격려하는 사랑과 기쁨의 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통이 생겨난 계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일찍 오는 산골의 11월 어느 저녁,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 구 이장 댁 할머니의 큰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우리 장모 일 년 농사 헌금이요.”

무척 자존심 강한 어르신인데 장모님 때문에 교회까지 걸음을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부끄러우셨는지 저녁 길을 택하셨지요.

“할아버지, 저녁 진지 드시고 가세요.”

같이 늙어가는 장모와 큰사위지만 장모에 대한 사랑은 저에게 두고두고 큰 배움이 됩니다. 마을에 교회가 들어선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 무척 긴장되셨나 봅니다. 끓어지고 오신 쌀자루를 받아 놓고, 진지는 벌써 드셨다고 해서 차와 다과를 대접하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어제 저녁 무엇을 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가게 상기 엄마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회관에서 할아버지는 어제 교회에 간 이유를 해명해야 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좋던데. 목사가 장모와 나, 무병장수하라고 기도해 주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 자네들도 추수감사절에는 그렇게 해. 자네 애들 맨날 교회에서 신세 지잖아!”

그렇게 마을에서 존경받던 할아버지의 한마디 설교로(?) 마을 사람들은 감사절이 되면, 한 분 두 분 교회를 찾아오거나 교인들을 통해 산골에서 나는 것들을 보내오셨고, 이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감사절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감사절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떡을 몇 말 해서 밤늦도록 율리와 돌리기도 했습니다.

어른 품만한 산골 고랭지 배추, 아이 허리만한 무, 뜨거운 태양을 머금은 호박, 잘 말린 각종 나물, 저녁노을 빛깔 같던 태양초, 빗자루처럼 예쁘게 묶어 보내오신 수수, 율무와 더불어 산에서 딴 벌꿀과 장뇌삼까지. 너무나 풍성했던 그 추수감사절을 잇을 수 없습니다. 갖가지 곡식들이 빼곡히 들어찬 강대상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아이들의 장난으로 더러 호박과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삶의 조건에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찌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은 더블린을 거닐며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박용남, 「디어 로나」 중에서

* 박용남 목사는 화천 부춘교회를 거쳐 현재 아일랜드 더블린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다.